

## 중등학교, 대학, 기업과의 연계체제 구축



김귀년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

『대학교육』지가 고교의 합성을 올린 지도 했수로는 어언 11년. 통권은 이번 호로 100호를 맞이하게 된다 하니 우선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그 동안 『대학교육』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

았을 편집 관계자들과 지면을 거쳐 간 필자들에게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회지 발전을 위해 지원해 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도 같은 뜻을 전한다.

『대학교육』지는 각종의 일반 회지와는 달리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또 제약점도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대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전당의 구성원들을 위해 발행되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바나 내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아카데미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연구논문, 교수 에세이, 학문과 관련된 기사 등을 고루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언론적 자세를 견지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체계적인 비판도 가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두 가지 기대와 요구를 지면의 내용 속에

서 동시에 만족시켜 나가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여겨지지만, 『대학교육』지는 이 힘든 과업을 무난히 성취하며 오늘에 이른 것으로 필자는 평가하고 싶다. 최고 지식의 이상과 용기를 갖고 현실의 교육문제를 폭넓고 바르게 보면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길을 제시하며 대학교육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고 생각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허구적 표피를 걷어내고 감춰진 진실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민감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점에 있어서 외부적인 상황 논리의 강요에 의한 제약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지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 구성원들의 애정과 재적이 매번 그러한 제약 요소를 녹여내는 용광로 구실을 해 왔고, 이제는 우리 나라 대학교육에 관한 정보 전달과 토론의 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한 것으로 믿고 있다. 『대학교육』지가 이렇게 아카데미즘적 바탕 위에서 지성인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전력투구 할 때, 대학의 연구와 교수 활동은 활발해지고 대학사회도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서 대학교육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지대하다. 더욱이 다가오는 21세기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기반 사회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을 어떻게 생산, 관

리, 활용하는가가 교육의 중심 과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대학교육은 문제해결 능력이나 창의력, 그리고 진취적 사고 등의 고등한 능력과 태도를 길러 줄 것을 요청받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체계가 과연 이러한 능력과 태도를 지닌 유능한 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는 바가 적지 않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필자는 사립중등학교 교육자의 입장에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중등학교의 교육정상화라는 명제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당위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다수 대학들이 2002년부터 다양한 입학전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의 교과 활동, 학교·학급 활동, 클럽 활동, 봉사 활동, 독서 교육, 행동 발달 상황 등 고등학교 전 학년의 활동에 관한 모든 자료가 전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의 특기자 전형과 학교장 추천제 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학교생활과 개인의 특기를 반영하는 입시제도가 초·중·등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학생들의 지적·정서적 성장에는 어떻게 작용할지를 『대학교육』지를 통해 심도있게 다루어 주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높은 시각과 함께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지적 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는 대학의 특성화를 앞당기는 교육제도나 정책의 모색에 역점을 두기를 바란다. 선진국의 대학에서는 소속학과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 및 전공과목을 축소하고 전문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를 이수할 때 운신의 폭이 커질 뿐 아니라 급속하게 변모하는 산업체 및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특성화는 대학 나름의 학풍을 조성하여 대학교육의 전체적인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대학교육』지가 특성화를 위한 성숙한 논리를 제시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전문적인 틀을 형성하는

데 기획력을 모아 준다면 대학들은 보다 분명한 이상점에 기초해서 대학발전의 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셋째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중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업체와의 상호 연계 및 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사이의 상호침투성이 증가하고, 교육부문과 직업훈련 분야 사이의 협력도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학습과 일의 세계간에 보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간의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지가 중등학교와 대학교, 기업으로 이어지는 연계체제 구축을 탐색하는 특집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대학교육』지의 양적인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 나가기를 권하고 싶다. 때로는 적절한 양적 증대의 선도가 발전 인자로서의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다. 현재보다 발행 주기를 단축하고 지면도 늘려 최신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을 보다 많이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위와 같은 『대학교육』지의 발전을 위한 조건들이 고무 구비될 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발전뿐 아니라 나아가 이 나라 대학의 정신을 이끌 수 있는 『대학교육』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시 한번 『대학교육』지의 통권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김귀년**

#### 김귀년

성균관대 정치학과와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최고위교육문화과정을 수료하였다. 교육부 중앙교육심의회 심의위원, 서울교원단체연합회장,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창문여고 교장으로서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 대학체육회 이사, 한국교총교육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